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철학으로부터 독립한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 배후의 원리를 실험, 조사, 관찰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해 밝히는 경험과학이다. 심리학은 분야에 따라 동물이나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신경해 부구조나 뇌의 기능에서 찾거나 마음의 구조 또는 과정에서 찾는다.

인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는지 등을 가능한 한 실험으로 밝힌다.

###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

이러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성격상, 심리학은 인공지능, 생물학, 정신의학, 신경과학 등의 자연과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및 행동문제(예, 노사관계, 리더십)를 연구할 때 경영학, 사회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이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심리학의 기초분야인 생물 및 생리심리학, 실험 및 인지심리학 연구는 주로 실험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물론 임상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 연구의 경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방법론을 함께 사용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다. 이제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조직이 커지고 동시에 다면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종전의 거시적인 설명이나 처방으로 해결되기 힘들게 되었다.

부정부패, 노사관계, 교통사고, 산업재해, 과중한 스트레스, 사회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은 개인 중심,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 중심으로 설명되거나 그 구체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30년대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될 그 당시부터 심리학 실험실이 마련되어 동물심리연구를 포함해서 기초 실험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였다.

## 창립 50돌 ... 회원 9백93명 활약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는 해방후인 1946년 창설되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으며 현재 9백93명의 회원이 활약하고 있다. 매년 10월에 연차학술대회를 비롯한 정기총회를 열고 있으며 90년엔 27개국에서 67명의 심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대회를 열었고 창립 50돌인 올해엔 「과학문명과 21세기의 도전심리, 사회, 문화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오는 6월27일~29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다.

심리학의 연구분야는 이 학문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의 경우 50여개나 된다. 분야에 따라 연구 주제와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하며, 새로운 행동과 지식을 어떻게 학습하고, 기억에 저장된 내용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감정과 동기는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며, 성격이나 지능과 같은 심리특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성질은 무엇이고,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나 장애의 원



**崔祥鎭**  
〈한국심리학회 회장 /  
중앙대 문과대 심리학과 교수〉

## 9개분과로 나뉜 연구활동

해방 후 1946년 임석재 서울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가)가 창설되어 만 50주년이 되는 1996년 현재 9백93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학회로 발전하였다.

한국심리학회는 건강심리학회, 발달심리학회, 사회심리학회, 사회문제연구학회,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생물 및 생리심리학회, 실험 및 인지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그리고 임상심리학회의 9개 분과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회는 월례연구발표회를 위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연 1회 내지 2회 발간하여 전문심리학 지식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 산하 학회들중 발달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그리고 임상심리학회는 각기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분과학회가 규정한 학부 및 석사학위과정의 과목 취득, 실습, 훈련 등을 이수한 후 자격고시를 치뤄야 한다.

현재 상담, 심리장애의 진단 및 치료, 발달이나 학습장애의 진단 및 치료, 예방 등 다양한 적응문제의 해결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매년 10월 연차학술대회 열어

모학회인 한국심리학회는 한국심리학회지 편집위원회, 상별 및 윤리위원회, 학술위원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 및 학회발전기획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있고, 과학 및 전문직으로서 심리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계속해 오

고 있다. 매년 10월에 연차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있으며, 2월에는 학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동계연수회를, 봄에는 춘계심포지엄, 경우에 따라 각 분과학회에서 여름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 시작된 동계연수회는 학부 상급반, 대학원생 또는 교수를 대상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고급심리학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심리학회에서 그 질과 수준이 가장 높은 연수회로 알려져 있다.

매년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되는 이 연수회에는 보통 3백명 내외가 참석하여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통계분석과 실험 설계기법, 또는 심리학의 최근 이론 동향에 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배운다.

한국심리학회는 지난 1990년 8월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동서양 27개국에서 67명의 심리학자들이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집단주의가 그 주요 특징인 동양의 인간관계를 개인주의가 그 특징인 서양의 인간관계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국제학술회의 외에도 매년 개최되는 춘계심포지엄의 경우, 우리 사회의 주요문제, 예를 들어, 지역감정, 부정부패, 남북통일, 삶의 질, 협상의 심리학 등을 주제로 심리학의 각 분야에서 경험적, 이론적 연구들이 심리학도는 물론 일반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 오는 6월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심리학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문명과 21세기의 도전 : 심리, 사회, 문화적 대응」이라는 국제

학술회의를 오는 6월 27~29일 호텔 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1)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2) 산업, 조직 및 경제발전 (3) 건강과 삶의 질 (4) 정보화 사회와 인간발달 (5) 가족과 인간관계 (6) 사회, 교육과 문화의 여섯 하위주제를 다룬다.

이 회의는 초고속, 초광역, 초복합, 초기능의 정보화시대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인간의 잠재력이 도약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와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해야 하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신경망연구로 유명한 인지과학분야의 D. Rumelhart (Stanford), 사회인지 발달분야의 거장 A. Bandura (Stanford), 발달심리학자 S. White (Harvard), 사회심리학자 H. Markus (Stanford), 철학자 R. Harre (Oxford),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 T. Sugiman (Kyoto) 등을 위시해서 30명 내외의 외국학자들이 초청되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많은 한국심리학자들이 각 하위주제 영역과 관련된 그들의 연구를 이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학은 그 성격상 자연과학이 기본 토대이지만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 행동과 마음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학제적인 분야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다. 인지과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인데, 인공지능, 인지심리학, 심리철학, 언어학 그리고 신경과학이 참여

하고 있다. 지능적 체계-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컴퓨터든-와 그 자체의 성질을 밝히는 인지과학의 특징은 학제적 성격에 있다.

인공지능분야에서는 컴퓨터와 같은 인공체계가 어떤 영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유형의 지식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현해야 하는지를 모의실험으로 다룬다. 인지심리학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기기억에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그 지식표상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의 경우 어떤 알고리즘 또는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과제를 수행해내는지를 실험적으로 밝힌다.

현재 과학과 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모두 인간중심보다 기계중심의 테크놀로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컴퓨터나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기계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시각이 바탕이 되는 테크놀로지로 발전시키려면 사람의 마음의 구조와 행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과학·산업발전에 큰 역할 기대

정보처리체계로서 인간의 기본 특징들을 실험으로 밝히는 인지심리학과 인간을 포함한 지능적 체계를 시뮬레이션실험이나 다른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인지과학이 바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외국에서는 몇년 전부터 인간과 기계

의 상호작용을 인간중심에서 연구하는 인지공학(cognitive engineering)분야가 형성되어 여러 인간요인문제를 정보처리 개념, 이론 및 방법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지공학, 인지과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에서 앞으로 활발한 기초 및 응용실험연구를 통해 과학 및 산업의 발전에 심리학자들이 기여할 것이다. 한국심리학회도 이러한 학제적 연구경향을 장려하고 또 이끄는 방향으로 학회발전을 모색하는 제반 사업들을 계획,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오(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회학술위원회위원장)

## ● 해외단신

### 곡물 6천5백만년전 잡초서 진화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농공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세계 주요 곡물은 6천5백만

년 전의 한 잡초에서부터 진화되었다는 유전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학교의 케이스 시세르츠, 앤드루 패터슨 등 두 교수는 화석에서 발견된 이 원시식물의 씨앗이 지구가 수백

만년전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각 대륙으로 전파돼 아시아에서는 쌀, 미주지역에서는 옥수수, 아프리카에서는 수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 레이저로 컴퓨터 냉각

미국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별들의 전쟁(Star Wars) 계획에 관여하던 과학자들이 죽음의 광선인 레이저를 물질을 냉각시키는데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레이저를 목표물에 쏘이면 정상적으로 열을 가해서 강철도 녹인다. 그렇다면 레이저가 어떻게 사물을 냉각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레이저 빔을 조절해서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목표물에 있는 특수한 원자를 들뜨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원자는 형광 빛을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레이저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복사의 에너지가 더 많아서 목표물은 에너지를 잃고 냉각된다. 이 연구소의 물리학자인 리처드 엠스타인박사는 이것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는 "이 방법이 결국에는 초전도 물질에 필요한 극한의 온도로 컴퓨터 회로를 냉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초전도 회로가 사용되면 컴퓨터와 다른 전자기기들이 수백배나 더 빠르게 될 것이다. 로스 알라모스는 이 기술의 특허를 얻어냈고 이것을 상업화하려 하고 있다.